



## 차상위계층 교우와 공감 나누기

본당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수급자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교우가 있다. 이분들은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담당자를 찾아다닐 시간이 없으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예가 많다. 이와같이 어려움에 처한 교우에게 본당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분과위원들이 암장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지원했던 사례들을 소개한다.



### 원천동성당

주소 : 443-82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9-2번지  
(원천동 월드컴로 95)

전화 : 031-216-4766

팩스 : 031-216-4769

E-mail : woncheon@casuwon.or.kr

## 활동내용

### 1. 개요

- ① 대 상 : 본당 내 저소득층 가정
- ② 자격기준 : 저소득층 가정 중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선정된 가정
- ③ 운영정원수 : 발생시
- ④ 운영기간 : 2011.01 ~ 2012.12

### 2. 진행표

- ① 활동 : 사회복지분과 위원회는 본당 구역장, 반장, 형제회장회의에 참석하여 어려운 교우가정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추천장이 들어오면 사회복지분과는 월례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생활이 어려운 교우 가정) 가정을 방문할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추천장을 기초로 방문 면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기초조사서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다.

**〈유의점〉**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할 때는 먼저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임을 밝히고, 추천인(구역장, 반장, 형제회장)의 소개로 연락드리니 만날 것을 먼저 전화로 요청한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종교생활 이야기, 가족관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대상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② 확장활동 :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월례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방안을 토론하여 본당신부님께 보고하고 대상자 가정을 찾아 본격적인 복지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은 대상자 상담, 본당 복지 지원금 지급, 사회복지분과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선물 전달 등을 실시한다.

- ③ 마무리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알게 된 모든 사실은 본당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 회의의 토론 이외는 비밀을 지켜야 하며, 분과위원은 담당 대상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상호간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자제하고, 성인 교우와 대화를 하며 자연스런 탐색으로 친교 관계를 유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한다.

## 활동사례

### [사례1] 저소득 한 부모 가정 "LH 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

성당 교우 중 3자녀와 생활하는 자매님(가명 김 마리아) 가정이 있다는 해당 구역 반장님의 추천이 접수 되었다. 추천서를 받은 사회복지분과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담당자를 배정하였고, 담당 위원은 마리아 자매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자매님은 45세의 나이로 형제님과 사별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중학교 1학년 3학년에 다니는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주택은 반 지하에 있는 방으로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을 지급하는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한 눈에 보기에도 비좁아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에는 습기가 가득 했으며 곳곳에는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다.

자매님은 사회복지분과 위원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딸들은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자존심의 문제인가? 하는 마음에 대화를 하면서도 많은 신경이 쓰였다.

#### ▶ 문제 및 욕구 사정

마리아 자매님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1개월에 110여 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4인 가구 월 1,439,413원 이하 인데도 수급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급여와 돌아가신 형제님에게 지급되는 사망 위로연금 30만 원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자매님은 "습기 찬 지하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녀들의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복지분과 위원이 '곰팡이가 핀 방과 거실에 도배를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더니 자매님은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 하였으니 곳 이사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 개입 1 - LH공사 연계

LH공사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지원 전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는 년 2%의 이자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년이



며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정수수료 기준으로 지급, 최대 28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별도)(본인부담) 도배, 장판 등을(호당 최대 6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 ▶ 개입 2 - 동사무소 연계

본당 사회복지분과 위원은 다음날 시청(주택건축과) 저소득층 지원 복지담당 공무원 을 찾아 원천동 성당 사회복지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과위원임을 밝히고, 자매님의 전세 임대주택 입주 현황을 문의했다. 입주자 모집현황을 살펴 본 담당자는 “자매님은 이번에 실시하는 지원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으니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 ▶ 개입 3 - 분석 조사

마리아 자매님 가정은 임대주택 평가 배점(15점 만점)에 5점이었다. 금년에 지원 하는 임대 주택이 130여 가구인데 총 지원자가 700여가구였다. 배점에 따라 선정 기준을 정하는데 자매님의 순위는 340여위였다.

자매님이 받은 점수는(세대원 수원시 거주기간 3년 미만 1점), (부양가족 3인 이상 3 점), (3자녀 이상 별도가점 1점), 합계 5점이었다. 입주자 모집 양식을 받아든 위원은 퇴근 후 자매님 가정을 방문하여 시청에 다녀온 현황을 말씀드리고 배점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배점 확인 중 1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수원시 거주 기간이 4년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여 2점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점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에 대하여 문의했더니 “적은 금액이지만 저축을 해 왔으나 생활비가 부족해 해약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다시 시청 담당공무원을 찾아 거주기간 누락에 대하여 문의했더니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현재 거주기간만 적용하여 점수 잘못 기록되었다.”며 사과했다.

즉석에서 점수를 수정하여 순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약 340위에서 약 174위로 상향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입주 주택 대상자 약 130 가구에는 미달되는 순위였다.

복지분과위원은 다시 자매님 가정을 방문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누락 점수 1점을 수정하여 입자 순위가 340위에서 174위가 되었다고 알려주었으며, 입주를 앞당길

방안을 모색했다. 점수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있으니 청약저축에 가입을 권했다. 그러자 자매님은 “청약저축을 상당기간 납입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해약했는데 지금은 저축 통장을 만들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다.

#### ▶ 점검과 재사정

분과위원은 본당 주임신부님과 임사회의를 개최하여 김 마리아 자매님의 전세 임대 신청에 대한 논의를 했다. 본당 주임 신부님은 “청약저축이 6개월 이상이며 입주자격 점수가 1점을 추가할 수 있으니 자매님께 청약저축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본당 복지기금을 매달 지급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자매님 가정을 방문하여 본당 주임신부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로 했다. 지금 통장을 개설하면 내년 3월에는 청약저축 점수 2점을 추가하여 총점 8점으로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입주는 가능한 것 같았다.

이후에도 LH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 결과

10월 어느 날 LH공사 경기지역본부(인계동)에 들러 자매님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문의했더니 이번에 전세임대 입주 추가 모집이 있어 자매님의 가정이 선정되어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했다. 자매님의 점수는 청약저축 6개월 이상을 포함되어 입주자격 총점 15점에서 배점이 7점이 되어 입주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자매님택을 방문하였더니 자매님도 조금 전에 입주통보를 받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또한 “11월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주택 소유자가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 보증금이 없어 이사를 어디로 해야 할지 걱정했는데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다. 본당 주임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위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고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자매님은 11월 현재 살고 있는 임대계약기간 만료시기에 맞추어 햇빛이 잘 들어오는 2층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자매님의 이사소식을 전해들은 본당 주임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위원 모두 자신들이 이사하는 것처럼 즐거워했다.

## (사례2) 경기도 위기 가정 “무한 돌봄”선정

### ▶ 문제 및 욕구 사정

사업실패로 자녀와 부인은 별거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가까운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댁에 쌀과 생활필수품이 필요하다는 해당 구역 반장님이 추천서를 사회복지분과에 접수했다. 추천서를 받은 사회복지분과는 회의를 개최하여 담당위원을 지정, 형제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시작하게 했다.

형제님은 유명 대기업에서 기술력이 뛰어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을 꿈꾸며 퇴직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기술력에 의지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은 실패를 거듭하였고, 가정 경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성인이 된 자녀 2명과 자매님은 형제님의 사업실패로 인해 찾아진 불화로 별거하게 하였고, 치매를 앓고 계시는 노모를 모셔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아파트는 형제님 소유였으나 사업실패로 경매에 넘겨져 집을 비워 달라는 명도 소송을 당한 상태로 당장 아파트를 비워야 할 처지에 있었다. 노모는 치매성으로 요양 등급 3급을 받았으나 요양원에 입원 시킬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 ▶ 개입 1 – 가정 내 이해결 문제 분석

형제님은 정부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2년 이상 미납된 상태로 모든 것이 절망상태에 있는 처지였다. 자신은 굶을 수 있는데 치매에 걸린 노모에게 밥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형제님은 생활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당장 노모의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을 두고 볼 수가 없어 본당의 복지 지원금과 생필품을 마련하여 형제님 가정에 전달하였다.

### ▶ 개입 2 – 무한돌봄서비스 제도 검토

사회복지분과에서는 주임신부님을 모시고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김 요셉형제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를 했다. 형제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무한돌봄서비스를 적용해 보기로 하고 분과위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자와 접촉이 가능한 위원을 선정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을 찾아가 요셉 형제님의 형편을 이야기 하고 정책적인 도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담에 들어갔다. 담당자는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



야 하니 함께 오라고 했다. 분과위원은 형제님을 찾아가 주민센터에 함께 갈 것을 부탁했으나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설득했다. 사회복지분과위원은 '형제님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였더니 심경의 변화가 생겨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가자고 했다.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는 "무한돌봄에 선정되려면 많은 조사를 실시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무한돌봄 지원은 의료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 있다. 형제님은 노모를 요양시설에 모시길 위해 의료비 지원과 임시 생활할 수 있게 생활비를 요청했다.

#### ▶ 결과

김 요셉 형제님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선정되어 노모를 장기요양원에 입원을 시켰으며, 형제님은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아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를 비워주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 ▶ 기타

이외도 저소득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휴먼시티에 걸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수원시와 수원시학원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재능Give! 교육나눔! 학원연계지원사업"에 2명의 학생에게 무료 강의를 받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활동결과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면 신뢰가 쌓여 반가워하고 자연스럽게 친교가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회복지분과 담당 위원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하고 있다.
- 사회복지분과에서는 어려운 교우 특히 차상위에 해당하는 교우를 발굴하여 정책적인 도움의 손길과 함께 이외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분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복지정책 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청과 각 시청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적합한 저소득층 교우가 있는지 탐색하여 이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결 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활동이라 생각된다.



## 차상위계층 교우와 공감나누기

